

[보잉] FAA, 737 MAX 10 인증 승인 발표 예정 - 마지막 미인증 기종이라는 걸림돌이 해소된다



26.10.20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FAA, 화요일 737 MAX 10 형식 인증 승인 발표 예정
- 737 MAX 패밀리 마지막 미인증 변형기종 인증 완료
- 생산·인도 확대 신호지만 밸류 할인 축소는 지켜볼 변수

미 교통부 장관 셉 더피가 화요일 워싱턴주 에버렛 공장을 방문해 연방항공청(FAA)의 737 MAX 10 형식 인증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MAX 10은 보잉의 주력 기종인 737 MAX 패밀리 중 동체가 가장 긴 변형기종으로, MAX 8·MAX 9가 먼저 인증을 받은 뒤에도 수년간 미인증 상태로 남아 있던 사실상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직전에 확인된 737-7·737-10 인증 비행시험 완료라는 흐름이 이번 FAA 발표로 실제 형식 인증 단계까지 넘어가는 셈이다. 737 생산율을 월 47대 체제로 끌어올리는 작업과 맞물려, MAX 10 인증은 생산·인도 라인업에 남아 있던 제약 하나를 풀어주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인증이 곧바로 인도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속도나 MAX 10 관련 구체적 주문·인도 숫자는 이번 입력에 담겨 있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잉의 회복 스토리는 매출·인도량·수주잔고 같은 양적 지표가 개선되는 반면 핵심영업이익(core EPS)이 컨센서스를 밑돌고 BCA·BDS 두 사업부 모두 적자에 머무는 구도였다. 생산 가능한 기종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양적 회복 축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수익성 전환은 결국 생산율 확대가 실제 인도와 현금흐름으로 얼마나 전환되느냐에 달려 있어 이번 인증만으로 BCA 영업이익률 양전환 시점(경영진 목표 2027년 중반)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이르다. 7월 말 FAA가 737 MAX 좌석 결함과 관련해 453기 대상 감항지시를 내린 상태에서 새 변형기 인증이 함께 나온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 규제당국의 품질 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지만, 신규 인증 기종에서 유사한 결함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남는다.

주가에는 완만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 할인이 수익성 전환 지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이번 인증 하나로 할인이 빠르게 좁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MAX 10 인증 이후 실제 주문 전환과 인도 일정, 그리고 10월 만료되는 SPEEA 노조 계약 협상 결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6.52	89.46	97.71	111.40	123.32
↳ 증가율	-14.50%	34.50%	9.21%	14.02%	10.70%
매출총이익	-1.99	4.29	12.41	17.95	22.88
↳ 마진	-2.99%	4.79%	12.70%	16.12%	18.55%
EBITDA	-8.87	6.23	4.40	7.98	12.27
↳ 마진	-13.34%	6.97%	4.50%	7.17%	9.95%
영업이익 (EBIT)	-10.71	4.28	2.11	5.91	9.80
↳ 마진	-16.10%	4.79%	2.16%	5.31%	7.95%
순이익	-13.18	-4.99	-0.72	2.69	6.00
↳ 마진	-19.82%	-5.57%	-0.74%	2.41%	4.86%
EPS	-20.38	-6.54	-0.98	3.49	7.54
↳ 증가율	250.77%	-67.91%	-85.06%	-456.67%	116.20%
잉여현금흐름 (FCF)	-14.31	-1.88	2.28	5.64	9.61
P/E	—	87.6x	—	54.6x	25.2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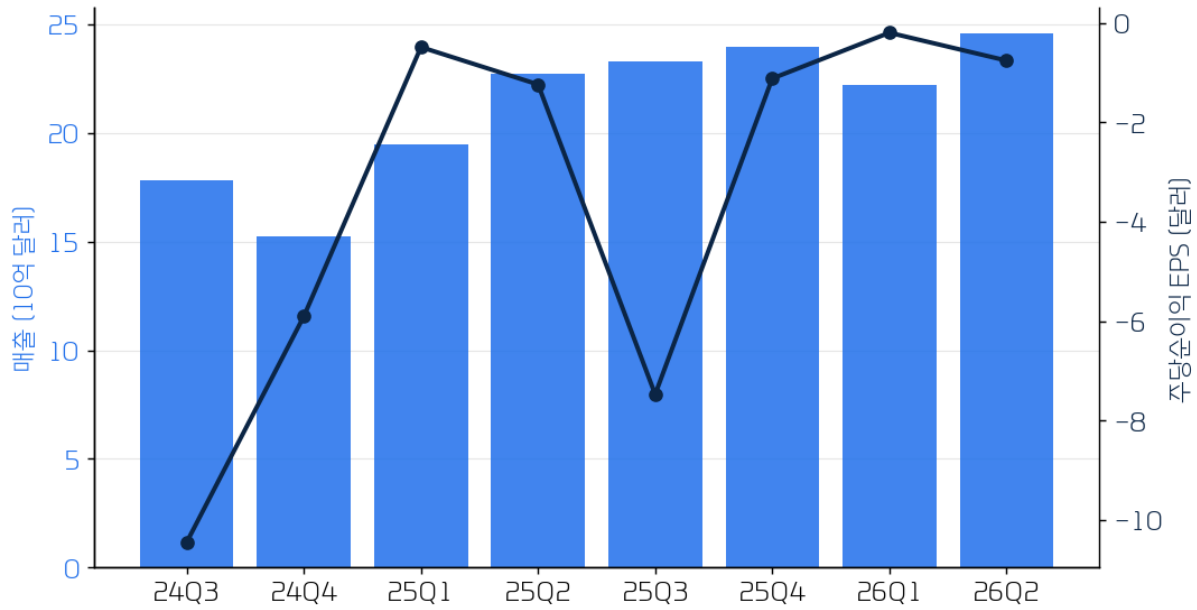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BA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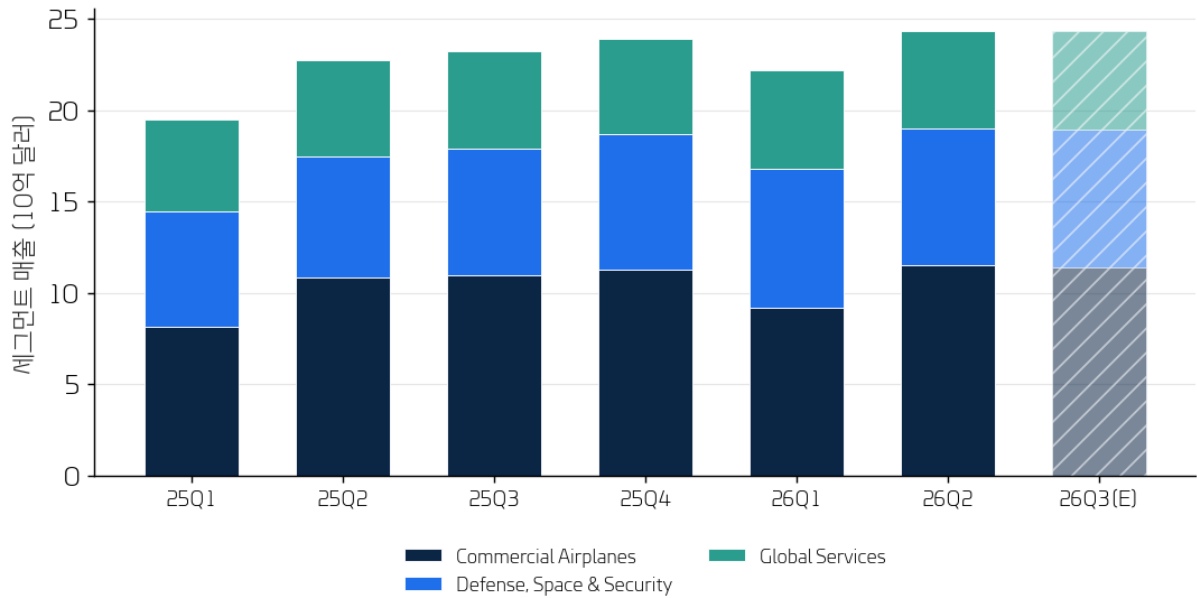


BA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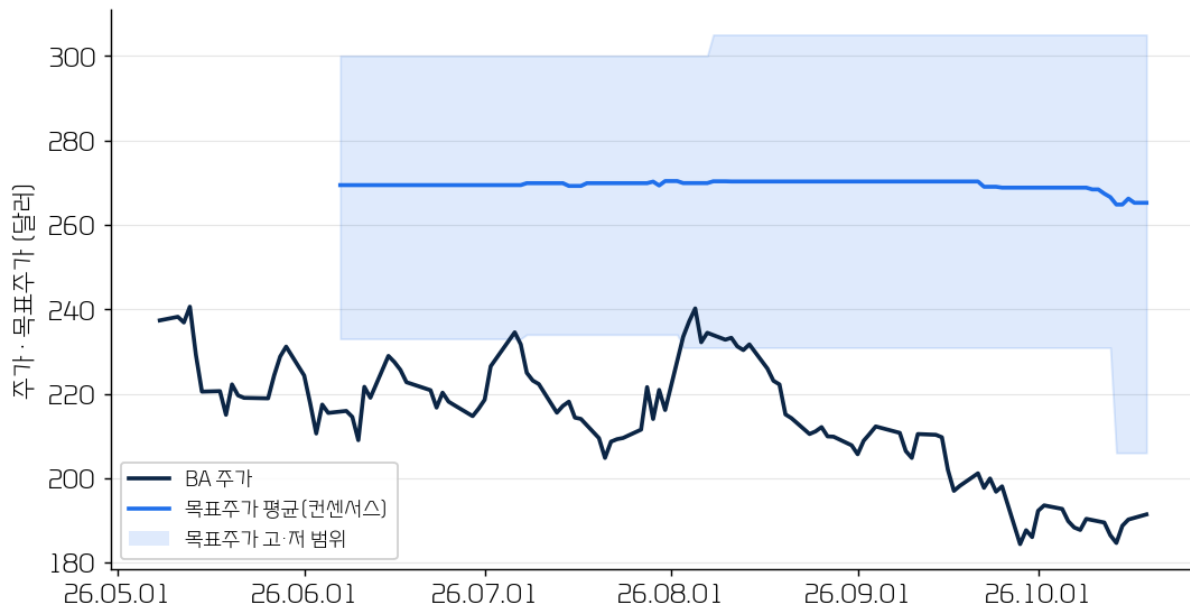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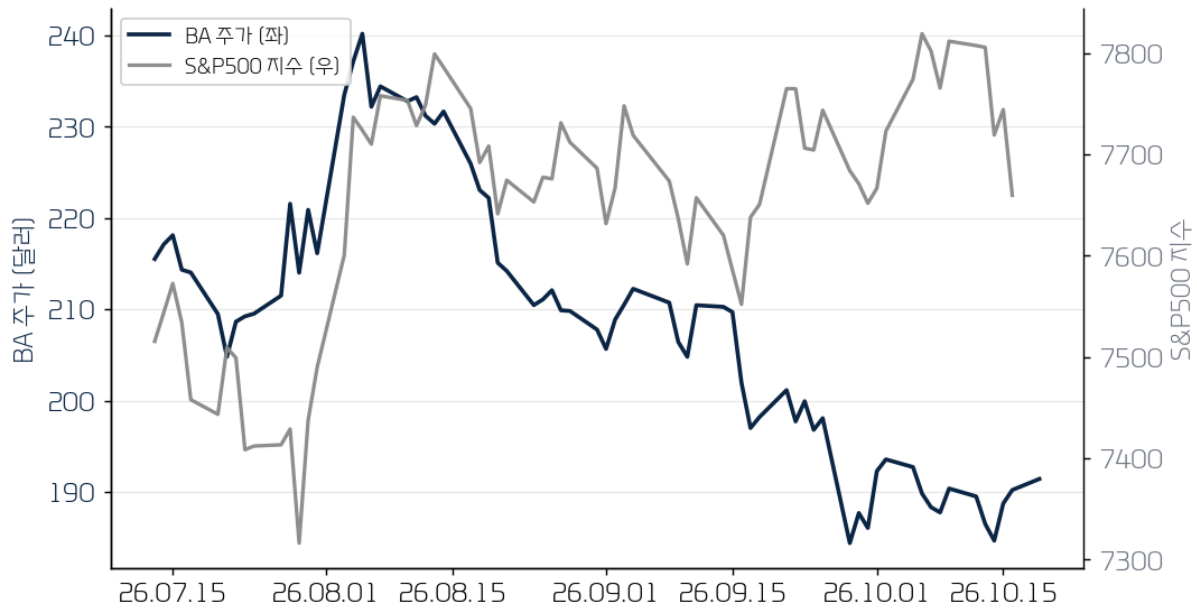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